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구원, 세션 2, 구원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적용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구원의 적용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면서 구원의 적용을 소개하는데, 이는 우리가 대부분의 교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며, 구원의 적용을 구원의 더 큰 파노라마에 두고 싶습니다.

구원이라는 태그 아래에는 구원의 적용에 속하지 않는 선택과 적용에도 속하지 않는 영광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노라마를 그려 교리가 어떻게 들어맞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파노라마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선택과 예정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구원 교리와 구원 측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두 주제를 성경적으로 동의어로 간주하지만, 예정은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더 큰 범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창조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것이 선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 창조와 선거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1세기에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의 성육신, 죄 없는 삶, 죽음과 부활, 특히 그의 승천, 성령을 부어주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심, 그리고 그의 재림조차도 그의 구원 사역의 최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1세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때, 그는 시간과 공간에서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적용이며, 우리가 공부할 교리의 대부분은 구원의 적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부르심(이것은 단지 개요일 뿐입니다), 거듭남, 회심, 칭의, 입양, 성화, 그리고 인내가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 그분의 백성의 삶에 적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계획되고, 성취되고, 적용되고, 완성됩니다.

우리가 다룰 영광화와 영생의 주제는 구원의 완성에 적절하게 속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교리를 다시 한 번 나누어 구원의 이 큰 파노라마에 따라 연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관련된 구원의 적용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주제에 대해 biblicalelearning.org에서 일련의 강의를 했으므로 구원의 성취를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구원의 적용, 그리스도와의 연합, 부르심, 거듭남, 회심, 칭의, 입양, 성화, 그리고 인내를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의 완성과 관련된 한 가지 주제, 즉 영광을 다룰 것입니다. 구원의 적용에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면 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모였을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구원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서론적 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학적 방법론에 대해 적어도 몇 마디 소개해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학적 신학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와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표는 실천 신학, 설교, 선교, 상담 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표준적인 신학적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해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시작하여 구약과 신약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연구합니다. 우리는 성경 신학으로 넘어가는데, 이는 주해에 기반을 두고 성경의 이야기,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의 전개되는 구원 패턴을

연구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강의에서 구원을 소개하기 위해 그 4중 격자와 그 스토리라인을 사용합니다.

주해는 성경 신학을 키우는데, 가장 강경한 상사가 정의했듯이, 성경 신학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역사이자, 전개되는 역사적 성경적 성격의 진보입니다. 신학이 역사적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성경 신학 측면에서 역사적입니다.

또한 성경 밖의 역사적 신학이라는 의미에서 역사적입니다. 역사적 신학은 교회가 역사를 통해 성경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부 시대, 테르툴리아누스와 이레네우스, 특히 오리게네스와 같은 교부들의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부 시대의 왕관으로 여겨졌던 어거스틴. 그리고 낱자를 알고 싶다면 400년이 좋습니다. 그는 그때 번창했고 그때 글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에는 성 안셀름이 등장하는데,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위대한 책인 코르데우스 호모에 대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신이 사람이 된 이유. 가장 유명한 중세 신학자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리고 1200년경은 그에게 좋은 대략적인 낱자입니다. 교부 신학, 중세 신학, 종교 개혁 신학. 루터는 1517년에 그 논제를 교회 문에 못 박아 거기에 작은 닳을 내렸습니다.

칼빈의 연대는 1509년에서 1564년입니다. 그들은 율리히 츠빙글리와 함께 권위 있는 개혁자들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은 성경의 해석, 신학, 설교, 예배, 그리고 모든 종류의 것들에 대한 위대한 회복입니다.

종교 개혁은 기독교 신학사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종교 개혁 이후 시기는 루터교와 개혁 교의학 모두에 중요합니다. 루터교와 개혁 신학은 각각 루터와 칼빈에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계몽주의 이후 현대로 접어들었고 인간의 이성은 고양되었습니다. 계몽주의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습니다. 성경을 능가하는 인간의 이성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로, 그리고 우리 자신의 포스트모던 시대로. 성경 신학이 주해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역사 신학은 그 어느 것에도 직접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도식화하려면 주해가 성경 신학을 먹이고 궁극적으로 체계 신학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신학은 종종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고, 각도를 두고 들어옵니다. 직선이 아닙니다. 각도를 두고 들어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지혜와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무(無)에서, *ex nihilo*, 즉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을 한 방식으로 발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테르툴리아누스와 어거스틴과 다른 이들의 통찰력과 공식화, 그리고 기독교회의 위대한 공의회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른 관점을 이해하지 않고 주님의 만찬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 루터교, 개혁신교, 기념주의. 우리는 성찰의 일부로 그 정보를 갖지 않고는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체계적 신학으로 가는 길입니다. 체계적 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시도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 대한 해석과 신중한 취급은 성경 신학의 기초이며, 성경 자체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 신학은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밖에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남성과 여성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더 좋게, 때로는 더 나쁘게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며,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진정한 체계적 신학은 많은, 많은 학문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하고, 저는 체계적 신학 자라기보다는 주해 신학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 말은, 저는 체계적이지만, 체계적 신학자들은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분야에서 많은 인간 지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주신 가르침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교리의 역사에 의해 알려지고, 훨씬 더 많은 것을 통해 전개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특정 교리와 관련하여 역사 신학을 언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교리에 대한 역사 신학을 탐구하지 않을 것이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공부할 세 가지 교리에 대해 다른 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선거 교리입니다.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로 거슬러 올라가 루터와 에라스무스 사이의 논쟁, 예를 들어 칼빈과 그의 반대자들, 그리고 1600년대 초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유명한 전투를 거쳐 다양한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전투에서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칼빈주의가 각각 5가지 요점을 가지고 전면에서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선한 사람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정당화 교리는 다른 것들 중에서도 연구되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출처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순진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통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우리만의 이유로 우리는 신학을 공부할 때, 심지어 우리의 경험을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말입니다. 하지만 솔라 스크립투라, 즉 성경만이 우리가 신학을 구성하는 데만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성경이 신학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최고이며, 우리의 목표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경을 우리의 이성, 전통, 경험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정당화를 위해 우리는 정당화에 관한 로마 가톨릭과 개혁주의의 가르침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매우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성화는 최근의 역사적 신학을 요구하므로,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 생활에 대한 특정한 이해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루터교, 웨슬리안, 케스윅, 오순절, 개혁. 모두 중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진리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장 중요한 것에 동의하지만, 서로 다르며,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최대한 잘 이해하기 위해 그 차이점을 공정하게 정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강의를 제대로 시작합니다 . 그 모든 것이 서론이었고, 제 인간적 이성을 다시 사용하여 제 마음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체계적이고 체계적인 신학적 범주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넘어가기 전에 각 교리를 간략한 성경적 요약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적 요약.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약의 대표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 대표되고, 이스라엘은 예를 들어 아브라함, 모세, 다윗으로 대표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언약의 중재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과 주의 종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구약 자체에도 개별적인 사람의 아들과 주의 종에 대한 표시가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가 아브라함의 참된 아들, 더 큰 모세,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 새롭고 마지막 다윗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또한 사람의 아들이며 주의 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속하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은 바울의 그리스도 안의 신학에서도 전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구원적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략하고 너무 간략한 성경적 요약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체계적인 공식화, 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연합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매혹적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예수의 이야기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에 참여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측면입니다. 우리가 연구할 구원의 다른 측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은 다른 측면이 들어맞는 우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큰 원이며, 그 안에 있는 칭의와 거룩함과 입양 등은 더 큰 원의 하위 집합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머리이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범주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정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이 사람들을 예수님과 그의 모든 구원의 은총에 합하는 역사입니다. 칼빈이 연구소의 3권, 첫 부분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용어를 사용하자면, 우리가 그에게

접붙여질 때에만 그는 우리의 것이 되고 ,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은 모든 축복이 연합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축복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연합은 구원의 파노라마를 다시 비추어 볼 때 가장 잘 인식되고 가장 잘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창조 전에 구원할 사람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획하고 아들이 성취한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구원의 적용에서 가장 포괄적인 범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의 적용이 단순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요약이 너무 단순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의 모든 사역은 그분 자신 외에는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한 인격의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 전체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 인격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이나 아버지를 십자가에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시키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나 20절. 그리고 히브리서, 저는 항상 이 구절을 놓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14일 겁니다. 잘못된 구절을 말씀드릴 뻔했습니다. 찾아봐서 다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구원을 계획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삼위일체, 특히 아버지가 구원을 계획했다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아들이 구원을 성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삼위일체, 특히 아들이 구원을 성취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삼위일체는

구원을 적용했지만, 거기서 가장 큰 일꾼은 하나님, 성령입니다. 그런데, 완성을 위해 삼위일체는 구원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 저는 구원의 적용의 모든 측면이 신학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질병에 대한 약, 필요의 충족으로 가장 잘 이해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은, 우리가 이미 암시했듯이, 그분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는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12 .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ESV.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분리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고, 여기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 안에 죄 사함과 영생과 구원의 모든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는 그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언어는 공간이나 위치의 언어를 사용하여 관계의 부족을 나타냅니다. 하느님은 자비롭게도 화해자로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은 한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왔습니다. 에베소서 2:13. 2:12, 우리는 그와 분리되었습니다. 2:13, 우리는 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믿는 자들은, 인용하자면, 한 영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인이나 낯선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18, 19. 저는 유대인 믿는 자들을 제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명예로운 지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야생 올리브 가지입니다. 유대인 신자들과 전 세계의 사랑하는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은 그리스도, 삼위일체,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와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우리는 인격을 구별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혼동하지 않지만,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재연합되는 것이지, 재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뛰어난 진리를 이해하려면 삼위일체 교리를 요약해야 하는데, 제 노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의 신이 영원히 세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신은 많지 않습니다. 신은 한 분입니다. 그는 영원히 세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오, 그것은 구약보다 신약에서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그것은 성경 이야기의 전개입니다. 은혜의 교리는 하나님이 항상 어떠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성육신에서 우리는 신격 안에 두 분, 두 인격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우리는 사실 신격 안에는 항상 세 인격이 있었다는 것을 배웁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신명기 6:4). 주님,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한 분의 주님이십니다.

전서 2:5.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곧 사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일체성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을 결코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육신으로 인해, 오순절로 인해, 그 가르침을 반영하는 서신으로 인해, 가르침을 담은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이 한 분의 하나님이 세 가지 모드, 세 가지 존재 방식, 세 인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다른 일신교와 대조적으로, 저는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은 그들의 신에 대한 견해와 달리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17:26에서 아버지여, 당신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히, 한 분의 신의 세 인격 사이에 소통이 있었습니다.

교제가 있었습니다. 연합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필요성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순수한 자비, 은혜, 선함에서 창조하셨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며,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한 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의 인격을 결코 분리하지 않지만, 인격을 구별합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 아버지는 영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 가 아닙니다 .

아들은 영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그만둘게요. 하지만 당신은 아이디어를 얻었죠. 우리는 인격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아들 만이 성육신하셨습니다. 오, 성령께서 처녀가 임신하게 하셨지만 성령은 성육신하지 않으셨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아들 만이 성육신하여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로 부활하셨습니다 .

영원하고 무한하며 인격적인 한 분의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인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별하고 혼동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점은 그들이 서로 상호 내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해에서 이 지점까지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적 인격의 상호 내주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모두 일신교를 언급합니다.

인격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동하지 않고 그들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16과 17에서 오직 아들만이 세례를 받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오직 영만이 신현으로,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감각에 속하는 것으로 내려오십니다.

감각적, 그게 내가 원했던 단어입니다. 관능적이라는 단어는 나쁜 의미 때문에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감각적으로 영은 비둘기로 보입니다

세 인격은 구별됩니다. 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신격의 세 인격, 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세 인격은 서로 내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세 신이 될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부르고, 나는 당신에게, 나는 은퇴한 지금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길드의 비밀 중 하나를 포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큰 단어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고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퇴했으니 더 이상 직장이 필요 없어요. 사실, 일주일에 5일 글을 쓰고 있지만, 괜찮아요. 그런 직장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교실에서 정식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페리코레스시스(Perichoresis)는 신격의 인격이 서로 내주하는 것으로, 그리스어로는 할레(ἅλλο), 라틴어로는 공동 내재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내주하는 것을 페리코레스시스, 할레, 공동 내재라고 부릅니다.

주변을 뜻하는 단어가 있고, 전치사 peri, perimeter, circum, circum, circum, circumference 등이 있고, being을 뜻하는 단어도 있는데, being around입니다. 끔찍하죠. 어근으로 단어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perichores

is, circumcession , co-inherence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 복음은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거하십니다 , 요한복음 14:10.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빌립?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지상에 있는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7:23.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20.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7:21, 23.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과정이 아니므로, 저는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다룰 수 없지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저는 이것들만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20, 또한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는 사람들도 구합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과 미래의 믿는 자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저 안에 계시고 제가 당신 안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뭐라고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글썄요, 잘 표현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삼위일체적 인격은 서로 내주합니다. 하나님의 웅장한 은혜로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 내주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적이고 유한하며 파생적이고 제한된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격 안에 거합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아! 신학을 가르칠 때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하◆ ...

성령은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과 합합니다. 영들이 우리를 삼위일체와 합하는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항상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 동안 신학을 가르친 후 년 ,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책을 쓰면서, 저는 성령의 내주, 신자들 안에 삼위일체가 내주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현재 연합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항상 진실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주하심은 현재이며,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를 그의 아들과 합치시며, 그 중 일부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바울은 관례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곳을 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덟 번이나 아홉 번은 읽을 겁니다.

그는 여섯 번이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10, 고린도후서 13:5, 갈라디아서 2:20, 에베소서 3:17, 골로새서 1:27, 골로새서 3:11. 한 번 더. 바울은 여섯 번이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에 의해 거한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8:10, 고린도후서 13:5, 갈라디아서 2:20, 에베소서 3:17, 골로새서 1:27, 3:11. 그리고 그 두 번은 우리 안에 아버지가 거하신다 . 고린도후서 6:16, 에베소서 2:22, 고린도후서 6:16, 에베소서 2:22.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명확히 설명해야겠습니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사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 또는 편재성과 그의 특별한 임재를 구별합니다 . 마소사 . 아마도 우리는 그의 가장 특별한 임재를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아버지는 어디에나 계시고, 그는 또한 믿는 이들 안에 계시지만, 그의 가장 특별한 임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에 있습니다.

아들은 육신 밖에서도 계속해서 편재하심으로 인해 존재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강의입니다. 그는 몸 안에서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는 한 곳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의 매우 특별한 임재로 계시지만, 그는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어디에나 현존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지만, 그의 특별한 임재로 믿는 이들 안에, 믿는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데 가장 특별히 애착을 두셨던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어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요청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16.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인용문, 당신은 그분을 압니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믿는 자들 안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23. 더욱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하시며,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20. 저는 요한복음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한 독일 신학자는 독일 신약학자 요한복음은 아이가 걸을 수 있고 코끼리가 헤엄칠 수 있는 강이라고 유명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찾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더 나은 성경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이들이 요한 복음을 헤엄칠 수 있고, 구원의 메시지가 장마다 있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같은 복음서에는 코끼리 물이 몇 개 있고, 우리는 지금 그 물에 약간 젖고 있습니다.

예수와 신자들은 서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15절 4절과 5절. 그의 유명한 사제 기도에서, 예수는 미래의 신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읽었습니다.

17:20-21.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울은 믿는 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1-2와 데살로니가후서 1:1. 이런 가르침은 압도적입니다.

삼위일체가 세 인격이 서로에게 거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사이의 구별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신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시고, 우리는 항상 그의 구속받은 피조물입니다. 둘째,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히 서로 내주하셨으며, 그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의 회심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삼위일체적 인격의 상호 내주는 그들의 신성한 본성에 속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서 누구인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이거나 친밀하며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결정적입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정의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살아있는 돌로 사용하여 살아있는 돌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다고 묘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4, 5.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 아름다운 그림에 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받았습니다. 10절,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과의 연합을 통해 그의 자비를 맛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인들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4. 맞습니다.

고린도 회중은 고군분투하고 영망진창이 되어, 적어도 대부분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오, 바울은 5장에서 계모와 함께 사는 소위 형제를 아내와 함께 사는 남자로 인정합니다. 바울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오, 그는 정말 화가 났다. 하지만 이 고군분투하고,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영적 은사로 가득 차 있고 대부분을 오용하고, 불신자들 앞에서 서로를 법정세우고, 죽은 자의 부활을 오해하고, 따라서 추론에 따르면 예수의 부활을 오해한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설명에 따르면 정의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밖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구별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건이자 진실입니다. 웨슬리는 우리 밖에 있는 우리를 위한 신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안에 있는 신을 구별했습니다.

좋은 구분입니다. 이것 역시 객관적인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요.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의미에서 주관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하지 못했을 때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까이서 개인적으로 가져다줍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묘사하기 위해 결혼 관계의 친밀한 그림을 사용합니다. 오, 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다른 그림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의 성전이며, 그는 결혼과 결혼 외의 성적 결합의 그림을 사용합니다. 성적 교류의 친밀함. 모르시니까, 그는 우상이 있는 성전에 여전히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 일부가 창녀를 자주 드나드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이하.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 창녀의 일부로 만들어야 할까? 절대 안 돼! 번역이야. 내 숨 막히는 소리야.

내 숨막힘은 절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기를. 그 생각은 사라지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거친 의역일 수도 있겠네요, 헐. 사실은 아니지만, 아이디어는 이해하시겠죠.

창녀와 합한 자는 그 여자와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주와 합한 자는 그와 한 영이니라. 고든 피가 바울에 대한 글에서 가르쳐

주었듯이, 바울의 서신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구별되지 않은 kurios , 주님은 항상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과 합한 자는 그와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15에서 17로 설정. 바울은 인간 관계 중 가장 친밀한 결혼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 중 가장 친밀한 측면인 성관계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결정적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한 개인적인 것입니다. 신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것입니다. 바울은 부부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몸의 결합을 비교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영적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참으로 개인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다른 모든 것이 사실이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결합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구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합친 자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압도적이다. 그리스도와의 합일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이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인용하자면, 그 안에서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습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 본문은 삼위일체가 믿는 자들을 인치는 데 활동한다고 제시합니다.

신성한 수동태, 당신은 봉인되었다. 능동태는 하나님이 당신을 봉인 하셨다 . 신성한 수동태, 당신은 봉인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백성을 봉인하는 데 주도권을 잡는 봉인자임을 보여준다.

아들이 아닙니다 .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성령입니다.

인봉은 그에게서 일어납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맥락에서 일어납니다. 다음 구절에서 암시하듯이, 이 인봉의 주된 의미는 구원의 영속성입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진리, 곧 진리의 말씀,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습니다. 성령은 소유의 구속을 위한 우리의 유업의 증서이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나중에 인봉을 사용한 것에서 강조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구원의 날을 위해 그분에 의해 인봉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성부가 성령의 인장으로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인봉하는 것의 주요 신학적 의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는 성령의 인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부의 인장 신자들의 의미입니다. 성부는 인장을 찍고, 우리의 연합을 인장 찍으며, 성령의 인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속의 날을 위해 그분에 의해 인봉되었습니다. 구속의 날을 위해.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연합은 너무나 영구적이어서 죽음조차도 그 유대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요한이 밝히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 자들을 찬양하십니다. 계시록 14:13.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14:13. 요약하자면, 이 강의를 마치기 전에, 이 강의를 마치면서,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확정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 아들과 영원히 연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개인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혼했으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지속적입니다. 우리는 깨지지 않는 성령의 인장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구원의 적용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